# 대통밥 만들고 단감 따고 … 가족과 함께 추억 만들어요

## 빛가람혁신도시 이주기관 직원 정착 지원

## 전남 농협, 80명 초청 '1박2일 농촌투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이주 공공기관 직원의 현지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공기관 이주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홀로 이주'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주에 거주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이주 기관 직원을 위한 다양한 정착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최근 담양 달빛무월마을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가족 80명을 초청한 농촌체험행사인 '엄마 아빠와 함께 가는 1박2일 농촌투어'를 진행했다.

농협이 농업 관련 이주기관 직원들을 위한 이 행사는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박2일 일정으로 계속된 이날 행사는 대통밥만들기, 단감따기, 장아찌만들기, 천연염색체험, 가족대항 윷놀이대회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곁들여졌다.

또 참가자들과 함께 담양국제대나무박람회도 관람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된 가족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해 이주 가족들이 전남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었다.

첫날 가족의 소망을 담은 형형색색의 소망등띄우기를 했고, 마을에서 준비한 시골밥상에 바비큐를 곁들인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대통밥을 함께 만들고, 트랙터를 타고 마을을 돌기도 했다. 또 가족과 함께 천연염색을 하고, 가족 대항 윷놀이를 즐기며 흥겨운 한 때를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권은진(한국전력공사)씨는 "수도권에서 거주하다 전남으로 이주한 가족들에게 농촌마을에서의 1박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경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혁신도시 이전기업 가족들의 새로운 주말 나들이 문화로 정착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도시가족과 주부, 학생,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과 우리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알리는 농촌체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24일 담양 달빛무월마을(팜스테이)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농촌투어에서 참가자들이 가족과 함께 소망을 담은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김장용 절임배추 예약 하세요

## 농식품부·aT, 20kg 2만5900~3만2900원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김장용 절임배추 예약거래 행사를 연다.

소비자들은 오는 11월 27일까지 aT 사이버거래소 직영쇼핑몰(www.eatmart.co.kr)과 CJ오쇼핑·오클락·오마트, 쿠팡 등에서 주문하면 된다.

절임배추 가격은 택배비를 포함해 20kg 1상자(8~11포기)에 2만5900~3만2900원이다. 김장양념은 5kg당 3만2000원, 김장용 소금은 20kg당 1만5900원이다.

중소상인은 aT 포스몰(www.posmall.co.kr)을 통해 절임배추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절임배추 가격은 20kg 기준 2만4000~2만7000원 정도다.

이번에 공급하는 절임배추는 함평산을 비롯해 강원·충청·전남 등 다양한 산지 배추로 구성됐다.

가격은 올해 김장철 시장추정가격보다 20~30% 저렴하다고 aT는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6일 화순군 능주초 학생과 교직원들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 본사를 견학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제공〉

# 가뭄 비상… 용수 1억6700만t 확보 총력

## 보성 등 저수지 44곳 간이양수장 설치

최근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전국 저수지의 물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의 물을 끌어오는 등 내년 농사를 대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8일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확산할 우려가 커 내년 영농기를 대비해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충북·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44곳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했다. 하천수를 농업용 저수지에 모아 지금까지 용수 814만t을 확보했다.

전남지역에서도 보성(신방·덕촌2 이하 저수지)과 무안·신안(장산·고서·광대·익금) 등지의 저수지에 물을 모으고 있다.

공사는 평년 대비 저수율이 50%에 못 미쳐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354곳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1억6700만t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 추가 용수 개발을 위해 지하수 착정장비 16개, 양수기 1540개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가뭄 극복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농어촌 기 살리고 초등학교 재능 키우고

## 농어촌공사, 화순 능주초 초청

## 농업박람회장·본사 견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26일 화순군 능주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초청해 국제농업박람회장과 나주 본사 견학행사를 했다.

공사는 올해 초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공사 창립주년인 107년보다 오래된 14개교를 선발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특별활동 지원을 통해 '농어촌 기(氣) 살리기를 위한 초등학교 재능키우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견학은 올해로 개교 107주년을 맞아 공사와 같은 시간 동안 전통과 역사의 길을 함께 걸어온 동행 파트너의 의미로 화순 능주초등학교를 선정했다.

이날 학생들은 3시간가량 국제농업박람회장을 견학하고, 지난해 나주로 이전한 공사 본사를 둘러봤다.

조성광 본부장은 "미래세대 꿈나무인 초등학교 학생들이 더 다양한 활동과 체험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연어 대량양식 길 텄다

## 강원도서 1만마리 양식 성공

## 다음달 첫 시범 출하

해양수산부는 28일 "고성군 외해(外海) 가두리 시설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키운 연어를 다음 달 시범 출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연어류 양식 연구를 추진해 기술을 확보했으나 상업적 연어 양식에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연어는 대표적인 한해성(寒海性) 어종이어서 수온이 높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양식이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온 상승과 태풍 발생 시 가두리를 하강해 가두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인 '부침식 가두리 시스템'을 양식에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은 외해에서 연어 1만마리를 양식하는 데 성공했다.

연어 연중 양식에 성공한 것은 아시아에서는 최초이고 전 세계에서는 노르웨이와 칠레 등에 이어 7번째다.

지난해 11월 캐나다에서 수입한 연어 알을 육상 내수면에서 부화시키고서 10개월간 바닷물에 적응하는 순치 과정을 거친 뒤 외해 양식장에서 키워왔다. 양식장은 해안에서 약 5㎞ 거리에 있으며 수심은 80m다.

4~5kg 이상 상업용 연어 크기로 양식하려면 바다 양성 기간이 14~24개월 정도 필요하다.

해수부는 내년 11월 상업용 크기의 연어 출하에 앞서 국내 시장 테스트와 홍보를 목적으로 이번에 1.5~2kg가량의 연어를 시범 출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상 가두리 시설 10곳에 연어 20만마리를 추가로 들여와 연어 대량 양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잡힌 연어는 437t, 연어 수입량은 2만2810t이다. 주요 수입국은 노르웨이·칠레·미국·러시아 등이며 수입한 연어의 64%가 냉동 연어다.

국내에서 연어는 광어 다음으로 수요가 많은 어종이지만 수요의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양식연어 대량생산에 성공하면 연간 양식연어 약 800t을 생산해 수입량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국내 양식연어는 대부분 신선냉장 형태로 유통될 예정이다.

국내산 냉장 양식연어 가격은 kg당 1만2천원 선인 노르웨이산보다 저렴한 kg당 9000~1만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연합뉴스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1,00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융 6억)

매가 17억

2층 상가 매매
〈나주시 삼영동〉

☆ 나주 혁신도시 10분 !!
(토 205평 , 건135평)
영강고교/영강초교 정문 앞

1층 6칸(올임대)
2층 2칸(사무실,주택가능)

(보2천, 융1억2천 – 월수익 200만)

매가 3억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1층 (상가, 2칸)
2~3층 (룸 8개)
4층 (주택)

(월수익 400만)
(보 3천7백, 융 1억)

매가 6억8천만

수익성 상가

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80만) (융 4천) → 매가 1억5천만
③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 월60만) 임대완료 (융 5천) → 매가 1억1천만
④ 광양 광영동 상아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8백만
⑤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 원룸6개) (보4천5백, 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①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 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②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5백, 월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옆 (융4천) (보5백, 월42만) → 매가 7천5백만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융2천) (보3백, 월33만) → 매가 4천5백
⑤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천역 1번출구 3분 (융1천) (보2백, 월30만) → 매가 3천6백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시설, 통건물)

① 상무지구 상거 5층건물 (롯데마트앞) (대지 122평, 건423평) → 매가 28억
②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뒷 (월수익 1,000만 – 보2억, 융6억) → 매가 20억
③ 첨단지구 3층 상가 (월수익 980만) (보1억, 융3억) → 매가 13억

010–7384–7800

010–6670–9800

법 률 경 매

1.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 (토 500평 ,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8억3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룸 54개–8층, 주택겸사무실)

2.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 서구 kt지사 부근

3. 북구 두암동 (토 15평, 건 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지하 (점포) 1층 (점포) 2층~4층(주택)
☆두암초교 부근 , 도로접 코너자리

4. 서구 치평동 (토 3평, 건 90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10층 중 7층 (상무지구 번화가 위치)
유흥주점 운영자 추천

5. 북구 유동 (토 240평, 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17억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억) (10억~100억)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062–382–5500, 010–6832–9700